

민주 당대표 다음주 통합 경선…‘호남 선택’에 쏠리는 눈

수해 복구에 당력 집중…호남·경기·인천 현장투표 다음달 2일로
권리당원 호남 33%·수도권 42%…호남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를 뽑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오는 8월 2일 한꺼번에 치르기로 하면서 ‘호남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권리당원이 표진된 ‘호남 표심’에 따라 민주당 새 사령탑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과 수도권에 동시에 투표를 하면서 호남 여론이 수도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수도권 투표도 이끌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들도 ‘호남 대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전날 저녁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수해 복구에 온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26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과 경기·인천권 현장 투표를 8월 2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같은 최고위 결정에 앞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후보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이 최고위의 결정은 향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예초 민주당은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광주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 현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어 내달 2일에는 같은 장소인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역별 마지막 합동연설회와 함께 서울·강원·제주 권리당원 현장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비 피해에 탓에 8월 2일 하루 동안 세 권

역의 현장 투표가 모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당 대표 경선 일정은 사실상 ‘원샷 투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폭우 피해를 고려해 지난 19~20일 각각 예정됐던 충청권·영남권 순회 현장 경선을 취소하고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호남과 수도권의 투표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호남 권리당원은 전체의 33%, 수도권은 42%에 달하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 투표가 완료되는 8월 2일 하루에 판세가 뒤집어 질 수도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의원,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 결과도 남아있다.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55%, 대의원 투표 15%, 일반 국민 30%를 반영해 선출한다.

과거에도 호남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가 사실상 결정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대권을 거머쥐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호남 경선 성적표가 사실상 최종 당락을 결정지었다.

한편 영남권과 충청권 경선이 마무리 된 결과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따돌리며 누적 1위를 이어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후보의 이들 지역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권 레이스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후보가 21일 광주 수해 현장인 서구의 한 가구백화점을 찾아 복구 작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 헌법 수록 가능…재판소원 고민 필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대법관 증원 신중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헌 관련 질의를 받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뒤 교환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3·1 운동, 4·19 혁명 등 민주 이념의 연장선에 그와 공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국민의 공감대 아래 헌법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삼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과거 (법원행정처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 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당권 대결 ‘친윤 vs 반윤’

탄핵 찬성 조경태·반대 장동혁 출사표…한동훈, 출마 저울질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자간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며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역시 탄핵 기각을 강하게 촉구했던 장동혁 의원도 21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이 이날 출사표를 던졌다.

비상대책위원장·대표 시절부터 친윤(친윤석열)계와 각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도 당권 도전에 무게를 두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 주자들의 면면에 비춰 탄핵 찬반 주자간 경쟁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친윤계를 비롯한 구주류에 대한 ‘인적 청산’과 극우성향의 전환길씨 입당 문제 등을 두고 당 내에선 뚜렷한 대지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마 회견에서 전씨 입당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지켜볼 수 없다”며 “당 대표가 돼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찬탄(탄핵찬성)과 주자들은 반탄(탄핵반대)파가 극우 세력과 연대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쇄신과 혁신을 부각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출마 회견에서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우리 당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회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윤여계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땅을 열어 수용하자고 했다”며 “아직도 5공화국에 사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는가. ‘친길(친전환길) 당대표’가 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9일 입당한 전씨는 후보 등록일인 오는 30~31일까지 책임당원 자격이 되지 않아 전대 출마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李 국정 지지 62.2%

리얼미터…전주보다 2.4%p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4.6%)보다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5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첫 하락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 작용해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2.3%,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3%p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다. 응답률은 각각 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